

심리치료사가 되는 길

최근에는 미주한인 커뮤니티에도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이런 분야에 직업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필자가 자원봉사자로 소속되어서 활동하고있는 [미주한국인심리학회\(Korea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로 심리학을 전공하고자하는 1.5 세, 2 세 자녀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자주 문의를 해 오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해져가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리치료사의 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며, 교육 및 수련과정은 다소 길고 까다롭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문제를 도와주는 매우 뜻깊은 전문직업분야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Licensed Psychologist, Licensed Marriage & Family Therapist(LMFT), 그리고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LCSW) 세가지의 심리치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두 개인적으로 개업이 가능하며 심리상담 및 치료에 임할 수 있다. 한가지 다른 점은 psychologist 는 심리검사를 통한 진단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반면 LMFT 나 LCSW 는 직접 심리검사를 하지 않는다.

Licensed psychologist 는 임상심리, 교육심리, 또는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 정부 면허 취득시에 학위인정에 제약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와 같은 기관의 인준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한다. 박사학위는 4 년, 5 년 정도면 취득이 가능하며 대학원 재학중인 3, 4 년 차에 인턴으로 현장에 나가 임상치료 경험을 쌓게 된다. 한국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www.naces.org\)](#)가 지정하는 학력인증기관을 통하여 학력인정을 받은 다음 미국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인턴(수련)과정을 거치고 미 전국면허시험 [EPPP\(Examination of Professional Psychology Proficiency\)](#)와 주정부 면허시험 [CPSE\(California Psychology Supplemental Examination\)](#) 두가지를 통과하면 개업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면허를 받기 위해서 3000 시간의 인턴과정 수료를 요구하며 이 중에서 1500 시간은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 1500 시간을 수료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EPPP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EPPP 시험을 통과한 다음 나머지 1500 시간을 채우고 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두번째 시험인 CP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치료사 윤리, 법률, 치료방법, 응급대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시험이다. 주 정부 시험을 통과하고 약물중독치료, 아동학대 치료법, 가정폭력, 성문제 등 4 과목의 교과과정을 마저 이수하면 치료사의 면허를 부여받는다.

박사학위취득 후 수련과정에서는 약 5 만 - 6 만불 정도 임금의 직장을 찾을 수 있으며 면허를 취득하고나면 6 만에서 8 만 불 정도의 급료를 받는 직장을 찾을 수 있다. 정신건강센터의 임상수퍼바이저(Clinical Supervisor)는 7, 8 만불, 책임자인 Clinical Director 의 경우에는 10 만에서 12 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

주, 그리고 카운티 정부 등에 심리치료사로 취업을 할 경우 초봉 7만 불에서 8만 불, 형무소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심리치료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0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주 [Board of Behavioral Science](#)에서는 LMFT 나 LCSW 둘 다 석사학위 취득 전, 후에 모두 3000 시간의 인턴수료를 요구하며 [Standard Test](#) 와 [Clinical Vignette](#) 테스트 두 가지 시험을 거쳐서 치료사 또는 소셜워커 면허를 받게 된다. 면허취득 전에는 약 4만불에서 6만불, 면허를 취득한 다음 급료는 6만불에서 8만불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개인, 부부, 가족 심리치료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있다.

개업을 하는 경우 치료사의 전문영역에 따라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저소득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의 경우 시간당 50 불에서 100 불 사이를 청구하는 치료사가 있는가 하면 한편 베벌리힐즈와 같은 곳에서는 시간당 300 불을 청구하는 치료사들도 있으며, 법정에 나가서 심리분석을 하거나 심리분석(psychological evaluation) 전문가로 활동하는 forensic psychologist 의 경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시간당 수수료가 200 불에서 500 불, 법정출장비는 하루에 2천불에서 5천불 까지 psychologist 에 따라서 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심리치료사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주정부 [Board of Psychology](#) 와 [Board of Behavioral Science](#) 웹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참고사항: 한국에서 유학을 온 경우 미국내 정규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다음 해당전공분야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일정기간 합법적 거주를 허용하며, 이때 직장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상심리학박사 리차드 손
(213) 234-8268